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조동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350호【주제 제25493호】주제105(2016)년 12월 15일(목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례없는 물고기대풍을 마련한 조선인민군 15호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황금해력사창조에서  
인민군대가 계속 앞장서  
나갈 데 대한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의 승고한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 안고  
당정책결사판철의 투생  
정신과 기풍을 높이 발휘  
한 인민군대안의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전사들이  
12월 14일 현재 낸 간물고  
기잡이계획을 170%로  
넘쳐 수행하는 차량안  
상파를 이룩하였다.

총정의 200일 전투를  
빛나게 장식하며 조국의  
동해전역에서 높이 울려퍼  
진 어로전투의 승전포성은  
핵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휘황  
한 길을 따라 사회주의 강  
대국건설의 장엄한 진군길  
을 다그쳐가는 천만군민에  
게 필승의 신심과 악관을  
데려주고 있다.

조선로동당위원장



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제  
며칠 있으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신 5돐  
이 되는 날이라고, 못 견  
디게 그리워지는 장군님을  
생각하느라니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날 밤 수표  
하신 수도시민들에 대한  
물고기공급문건이 떨어져  
오늘도 그 문건을 몇번이나  
보고 또 보았다고,  
인민군대에서 잡은 물고기  
를 수도시민들에게 보내  
주면 우리 장군님께서  
기뻐하실것만 같은 생각에  
인민군대 수산기지를 찾아  
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  
였다.

원수님의 심정을 알게  
되면 인민군대안의 수산사  
업소들에서 제일 크고 물  
좋은 물고기들을 꿀라 보  
내줄것이라고, 인민군장병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식경제시대와 사회  
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개건현대화되  
었으며 전례없는 물고기대풍을 마련한  
조선인민군 15호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  
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  
군 차수 황병서동지, 인민무력성 제1  
부상인 육군상장 서홍찬동지가 동행하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제549군부대의 지휘관  
들과 수산사업소의 일군들이 맞이하  
였다.

지난해 11월 이곳 수산사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불과 머칠 사이에 수천t의 물고기를 잡  
은 어로전사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  
시면서 짧은 기간내에 도달해야 할 년  
간물고기생산목표도 제시해 주시였으며  
사업소를 현대적인 수산기지로 전면시  
킬것을 직접 발기하시고 개건현대화공

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과 배려  
에 충정으로 보답하기 위해 산악같이  
펼쳐나선 군부대와 사업소의 일군들,  
종업원들, 군인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조선인민군 15호  
수산사업소가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건축물을 파시하며 몇 들어지게 꾸려졌  
을뿐만 아니라 희한한 물고기대풍을 안  
아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부대

지휘관들과 수산사업소 일군들의 손  
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그동안 많은  
물고기를 잡으면서도 사업소를 바다가  
풍치와 어울리게 먼 후날에 가서도 손  
색없는 현대적인 수산기지로 전변시키  
느라 정말 수고들이 많았다고 칭하하시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선  
하고 귀향한 고기배에 직접 오르시여  
어로공들의 손도 허물없이 잡아주시  
며 수고들이 많았다고, 힘들지는 않는  
가고, 예로되는 것은 없는가고 일일이

풀도 모두 좋아할것이라고 눈물을 머  
금고 말씀을리는 일군들에게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고맙다고, 자신과  
마음을 합쳐주어 정말 고맙다고 거듭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산사  
업소의 여건과를 돌아보시면서 개건  
현대화정형과 물고기잡이실적, 저장  
및 공급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묘해하  
시였다.

2 면으로 계속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례없는 물고기대풍을 마련한 조선인민군 15호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 하시였다



## 1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가공장에 들리시여 종업원들의 작업모습을 보시면서 모든 가공공정의 자동화를선화, 로보트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위생성을 철저히 보장함에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행통처장과 마대에 산더미 같이 쌓아놓은 물고기를 보시며 마치 금괴를 무져놓은것 같다고, 행통한 물고기판들이 짹찼다고, 명년도 9월까지 군인 일인당 매일 200g씩 공급 할수 있는 물고기를 보관하고있다는데 대단하다고, 쌓였던 피로가 말끔히 가셔진다고 환하게 웃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종합지형실도 돌아보시면서 이곳 수산사업소에서

어장탐색과 물고기잡이를 비롯한 생산과 경영활동의 정보화, 과학화를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목표를 내세우고 도입한 해양환경정보분석평가체계, 해상지휘체계, 물고기 가공설비조종체계, 전력감시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루어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시적 교임실, 연혁소개실, 문화회관, 과학기술 보급실, 정양소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생산건물, 생활건물들이 설계도 잘되고 시공의 질도 높다고, 어로공들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면서 래년에 이곳 사업소의 종업원들을 위한 살림집까지 벗을 어지게 지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여기저기 봐줄때 대한 문제 등 사업소의 관리운영에

둘러보아도 지난해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없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동네지구에 또 하나의 자랑할만 한 수산기지가 훌륭히 일떠섰다고, 이렇게 우리 손으로 일떠세운 창조물을 볼 때가 제일 기쁘고 힘이 들어 도 일하는 보람을 한껏 느끼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300일 출어일수를 보장하고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물고기를 집단적으로도 잡고 분산적으로도 잡으며 먼바다에서도 잡고 가까운 바다에서도 잡으며 큰 배로도 잡고 작은 배로도 잡는 식으로 월세없이 어로전투를 전개 할데 대한 문제, 고기매와 어구들을 보다 현대화하기 위한 무장을 즐기차게 벌릴데 대한 문제, 어로공들이 물고기잡이에 전심전력 하도록 그들의 생활을 잘 둘

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15호수산사업소를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올해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이 특한 놀라운 성과들을 통하여 황금해의 역사를 계속 즐기차게 이어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의 수산부문에서 오늘과 같은 물고기대풍, 물고기사태를 안아올수 있은것은 결코 사회의 수산부문보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당정책은 곧 과학이고 승리라는것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당에서 준 과업은 오직 무조건 침행 할 의무밖에 없다는 결사판결의 정신을 높이 발휘한데 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는 지금 황금해역사창조의 칼피

칼피를 자기의 뜨거운 충정의 함방을로 쐐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15호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다음해에도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당의 수산정책관철에서 선봉에 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인민군 15호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또다시 찾아오시여 대해 같은 은덕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립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김정은동지의 현지 말씀을 빛나게 판철하여 황금해로 빛나는 내 조국의 주쁜 바다에서 『바다 만풍가』의 흥겨운 노래소리가 영원히 즐기차게 울며 퍼지게 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었다.

본사정지보도반





#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5돐에 즈음하여

## 중앙미술전시회 개막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5돐에 즈음한 중앙미술전시회가 개막되었다.

전시회장 중심에는 백두산경에 오르신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형상한 미술작품이 모셔져 있다.

전시회장에는 우리당과 혁명의 영원한수령이신 위대한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위인으로 당은 영성작품들이 모셔져 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일에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이 눈부신 현실로 절처지는 우리조국의 자랑찬 모습을 형상한 수십점의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었다.

봉남산단부에 오르시여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막하신

현대적으로 개광된 민족악기들이 자기의 특색한 음색으로 공연

무대에 흥취되며 장식할 때마다 위대한장군님께서 민족악기개행을 위해 바치신 뜨고가 어려와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세계악기제작의 역사로 더불어보면 하나님의 악기를 완성하는 데도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장군님의 정적적인 명도 밖에 동당시대에 민족악기들을 개량하는 악기제작의 새 랙사가 창조되었습니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고사하시었습니다.

『민족악기는 민족음악을 창조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1970년대 초에 어느 한 예술단체의 민족악기중주조를 지도하시던 위대한장군님께서는 민족악기와 공후를 가야금처럼 놀려놓고 연주하도록 만족해보라고 과장을 주시었습니다. 그후 와공후를 개량한 새 민족악기의 시제품이 나왔을 때에는 평소 연주를 들어보면서 악기를 만든 제작자들도 미처 발설하지 못한 부족점을 즉

의 선군정치는 훌륭한 보급!』 등의 작품들에 달라지고 있다.

조선화『온온비 맞으시며』, 『진선길에 올리는 종소리』, 유화『대개도의 새 역사를 점쳐 주시며』를 비롯한 작품들은 위대한수령께서 달리고 가신 인민을 한몸에 안으시고 혁명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생절단의 초강도 강행군길을 헤쳐가며 어버이장군님의 헌신과 도고를 눈물겹게 전하고 있다.

하늘처럼 밝고 따뜻한 민족의 어버이를 너무도 뜻밖에 잊은 상실의 아픔을 안고 이 나라 천만민이 위대한장군님을 목놓아 무르는 12월의 날들을 눈물 속에 뜰어 캐보게 하는 유화『그려운 끝이 없네』, 미카명

의 12월』 등의 화폭들도 전시되어 있다.

유화『여동간방의 새 물결』, 조선화『고산평수종합농장』을 비롯한 작품들은 위대한수령님들의 부강조국건설념원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아래 나날이 풍성하게 발달되어나가기 위한 혁명로통제과급과 직행원들의 결의모임이 14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미야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부장, 직행원군들, 로동자들, 직행원들이 참가하였다.

박춘남문화상이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암고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편집으로 이어온 지난 5년간은 우리당과 혁명의 영원한 날,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점의 진리를 짚길이 간직한 나날이었다고 말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세상하게 우리역을 떠나니 봄부터 5월이 되는 민족최대의 주보의 날을 맞이하고 있다.

아버지장군님의 뜻을 높이 추구드리고 천민군민을 빼친해승의 한길로 이끄는 백두산천출명장의 강연대에 기상이 아크릴화『선군정치를 만능의 보조로 들어주시고』, 선전화『우리당

## 백두령장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들어 어버이장군님의 평생념원인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자

### 로동계급과 직행원들의 결의 모임

죽년영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펼치시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풍성하게 발달되어나가기 위한 혁명로통제과급과 직행원들의 결의모임이 14일 14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미야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부장, 직행원군들, 로동자들, 직행원들이 참가하였다.

연설자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직행도체계를 훌륭히 세우는 것은 주체혁명위업이 후속의 혼불령 없이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치밀하게 전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로동계급과 직행원들이 위대한장군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물어쥐고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결정적 우호고수하고 빛내어 나갈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직행도체계를 훌륭히 세우는 것은 주체혁명위업이 후속의 혼불령 없이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치밀하게 전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직행도체들이 경제강국건설의 주요구조마다에서 사회주의 경쟁을 뛰어넘어 여러 가지 대로운 통일을 활발히 조직하고 따라온 시기, 따라온 우기운동과 경협교환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두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파와 위대한 김정일성-김정일주위의 기지 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훌륭히 확정함으로써 이 대우에 위대한장군님의 명월이 활짝 봉권 부강번영하는 원하게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때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쟁여졌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파와 위대한 김정일성-김정일주위의 기지 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훌륭히 확정함으로써 이 대우에 위대한장군님의 명월이 활짝 봉권 부강번영하는 원하게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때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파와 위대한 김정일성-김정일주위의 기지 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훌륭히 확정함으로써 이 대우에 위대한장군님의 명월이 활짝 봉권 부강번영하는 원하게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때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파와 위대한 김정일성-김정일주위의 기지 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훌륭히 확정함으로써 이 대우에 위대한장군님의 명월이 활짝 봉권 부강번영하는 원하게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때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파와 위대한 김정일성-김정일주위의 기지 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훌륭히 확정함으로써 이 대우에 위대한장군님의 명월이 활짝 봉권 부강번영하는 원하게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때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파와 위대한 김정일성-김정일주위의 기지 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훌륭히 확정함으로써 이 대우에 위대한장군님의 명월이 활짝 봉권 부강번영하는 원하게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때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파와 위대한 김정일성-김정일주위의 기지 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훌륭히 확정함으로써 이 대우에 위대한장군님의 명월이 활짝 봉권 부강번영하는 원하게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때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파와 위대한 김정일성-김정일주위의 기지 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훌륭히 확정함으로써 이 대우에 위대한장군님의 명월이 활짝 봉권 부강번영하는 원하게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때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파와 위대한 김정일성-김정일주위의 기지 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훌륭히 확정함으로써 이 대우에 위대한장군님의 명월이 활짝 봉권 부강번영하는 원하게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때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파와 위대한 김정일성-김정일주위의 기지 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훌륭히 확정함으로써 이 대우에 위대한장군님의 명월이 활짝 봉권 부강번영하는 원하게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때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파와 위대한 김정일성-김정일주위의 기지 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훌륭히 확정함으로써 이 대우에 위대한장군님의 명월이 활짝 봉권 부강번영하는 원하게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때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파와 위대한 김정일성-김정일주위의 기지 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훌륭히 확정함으로써 이 대우에 위대한장군님의 명월이 활짝 봉권 부강번영하는 원하게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때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파와 위대한 김정일성-김정일주위의 기지 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훌륭히 확정함으로써 이 대우에 위대한장군님의 명월이 활짝 봉권 부강번영하는 원하게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때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파와 위대한 김정일성-김정일주위의 기지 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훌륭히 확정함으로써 이 대우에 위대한장군님의 명월이 활짝 봉권 부강번영하는 원하게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때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파와 위대한 김정일성-김정일주위의 기지 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훌륭히 확정함으로써 이 대우에 위대한장군님의 명월이 활짝 봉권 부강번영하는 원하게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때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파와 위대한 김정일성-김정일주위의 기지 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훌륭히 확정함으로써 이 대우에 위대한장군님의 명월이 활짝 봉권 부강번영하는 원하게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때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파와 위대한 김정일성-김정일주위의 기지 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훌륭히 확정함으로써 이 대우에 위대한장군님의 명월이 활짝 봉권 부강번영하는 원하게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때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파와 위대한 김정일성-김정일주위의 기지 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훌륭히 확정함으로써 이 대우에 위대한장군님의 명월이 활짝 봉권 부강번영하는 원하게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때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파와 위대한 김정일성-김정일주위의 기지 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훌륭히 확정함으로써 이 대우에 위대한장군님의 명월이 활짝 봉권 부강번영하는 원하게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때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파와 위대한 김정일성-김정일주위의 기지 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훌륭히 확정함으로써 이 대우에 위대한장군님의 명월이 활짝 봉권 부강번영하는 원하게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때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파와 위대한 김정일성-김정일주위의 기지 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훌륭히 확정함으로써 이 대우에 위대한장군님의 명월이 활짝 봉권 부강번영하는 원하게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때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파와 위대한 김정일성-김정일주위의 기지 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훌륭히 확정함으로써 이 대우에 위대한장군님의 명월이 활짝 봉권 부강번영하는 원하게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때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파와 위대한 김정일성-김정일주위의 기지 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훌륭히 확정함으로써 이 대우에 위대한장군님의 명월이 활짝 봉권 부강번영하는 원하게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때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파와 위대한 김정일성-김정일주위의 기지 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훌륭히 확정함으로써 이 대우에 위대한장군님의 명월이 활짝 봉권 부강번영하는 원하게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때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파와 위대한 김정일성-김정일주위의 기지 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훌륭히 확정함으로써 이 대우에 위대한장군님의 명월이 활짝 봉권 부강번영하는 원하게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때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파와 위대한 김정일성-김정일주위의 기지 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훌륭히 확정함으로써 이 대우에 위대한장군님의 명월이 활짝 봉권 부강번영하는 원하게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때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파와 위대한 김정일성-김정일주위의 기지 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훌륭히 확정함으로써 이 대우에 위대한장군님의 명월이 활짝 봉권 부강번영하는 원하게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때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파와 위대한 김정일성-김정일주위의 기지 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훌륭히 확정함으로써 이 대우에 위대한장군님의 명월이 활짝 봉권 부강번영하는 원하게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때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파와 위대한 김정일성-김정일주위의 기지 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훌륭히 확정함으로써 이 대우에 위대한장군님의 명월이 활짝 봉권 부강번영하는 원하게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때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파와 위대한 김정일성-김정일주위의 기지 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훌륭히 확정함으로써 이 대우에 위대한장군님의 명월이 활짝 봉권 부강번영하는 원하게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때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파와 위대한 김정일성-김정일주위의 기지 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훌륭히 확정함으로써 이 대우에 위대한장군님의 명월이 활짝 봉권 부강번영하는 원하게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때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파와 위대한 김정일성-김정일주위의 기지 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훌륭히 확정함으로써 이 대우에 위대한장군님의 명월이 활짝 봉권 부강번영하는 원하게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때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파와 위대한 김정일성-김정일주위의 기지 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훌륭히 확정함으로써 이 대우에 위대한장군님의 명월이 활짝 봉권 부강번영하는 원하게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때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파와 위대한 김정일성-김정일주위의 기지 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훌륭히 확정함으로써 이 대우에 위대한장군님의 명월이 활짝 봉권 부강번영하는 원하게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때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파와 위대한 김정일성-김정일주위의 기지 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훌륭히 확정함으로써 이 대우에 위대한장군님의 명월이 활짝 봉권 부강번영하는 원하게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때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파와 위대한 김정일성-김정일주위의 기지 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훌륭히 확정함으로써 이 대우에 위대한장군님의 명월이 활짝 봉권 부강번영하는 원하게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때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파와 위대한 김정일성-김정일주위의 기지



